

# 전국 원활한 사료공급 기반 마련

- 월 3만톤 생산, 대구경북지역 총괄 -



▲ 지난 15일 (주)팜스코 동부공장 기공식이 경북 칠곡 공장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기업인 (주)하림의 자회사인 (주)팜스코(대표 정학상)가 15일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농기계 특화단지에서 동부사료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주)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을 비롯, 회사 관계자 및 축산관련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팜스코는 매출 1조원대의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로, 2017년 12월 칠곡군과 투자협정 협약을 체결하고 아곡리



▲ 정학상 (주)팜스코 대표이사

농기계 특화단지에 370억원을 투자했다. 동부사료공장은 부지면적 2만 7천 428㎡에 지상 9층 8동, 연면적 1만 3천 786㎡ 규모로 지어졌으며,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을 총괄하게 된다. 동부사료공장은 월 3만톤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ICT기술을 바탕으로 전 차량 One-way 시스템을 가진 Smart Factory System 공장으로 단순, 속도, 안전, 친환경에 중점을 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첨단 사료공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3년 영등포에 배합사료공장으로 시작된 (주)팜스코는 46년동안 미원, 대상, 대상팜스코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8년 하림그룹에 합병되면서 (주)대상팜스코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팜스코는 안성, 정읍, 제주에 공장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제 4공장을 동부지역에 완공함에 따라 경상도 일원에 원활한 사료를 공급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팜스코는 최근 10년간 300%가 넘는 성장을 이룩하면서 2008년에 130만톤의 사료를 판매하였고 금년에는 140만톤 판매를 목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동부사료공장은 AI 등 질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지난 2016년 전국에



▲ 축하 세레머니를 하는 관계 인사들



▲ (주)팜스코 동부사료공장 전경

AI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경상북도만 AI를 피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도 팜스코 사용 농가들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상도 지역에 공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며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공장이 준공되는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주)팜스코는 축산식품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사명 아래 항상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언제나 No.1을 추구한다는 핵심가치를 목표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